

# 易之思之면 만사형통 ?



孫長煥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올해**는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지 5백 주년이 되는 해다.

콜롬부스가 1492년 아메리카대륙에 첫발을 디뎠으니까 올해로 꼭 5백년이 지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미지의 대륙이었으니까 발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곳에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서구인들이 위대한 탐험가라고 칭송하는 콜롬부스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조용한 삶의 터전을 짓밟고 들어온 정복자에 불과하다.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인도인줄 알았던 그들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아닌 것을 알자 엉뚱하게도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슬쩍 말꼬리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디언이라고 하면 인도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머리에 깃털장식을 하고 말타고 활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서구

인들의 시각에 많이 동화된 까닭이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 TV에서 방영한 영화중에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다.

그 대충의 줄거리는 이렇다.

영국군 주둔지에 인도 소년 하나가 마스코트로 들어와 병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이 소년은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팔부는 법을 배운다.

하루는 인도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벌어지고 소년도 따라 나섰다가 산속에 매복해 있는 반란군을 발견, 나팔을 불어 영국군에게 알리고 자신은 총에 맞아 죽어간다.

소년때문에 위험일보직전에서 살아난 영국군은 반란군을 모조리 소탕하고 「장렬하게 숨진」 소년을 영웅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이다.

무심코 보다보면 코끝이 찡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영화에 나오는 반란군은 누구이며 소년영웅은 누구인가.

반란군은 바로 인도독립군이며 소년은 천하의 매국노 아니던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았던 우

리의 경험에 비취볼 때 만일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일본이 만들었다고 해도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얼마전 극장에서 개봉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부시맨」이라는 영화.

새까만 피부에 작달만한 키, 납작한 코에 선량한 느낌을 주는 눈, 그리고 천쪼가리 하나 걸치고 뜻도 모를 말을 「따따부따」 지껄이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부시맨을 기억할 것이다.

그 부시맨이 예쁜 백인여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을까. 피부도 하얗고 코도 오뚝하고.」

아마도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은 미인을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관객들의 웃음을 끌어내려고 했을 것이며 실제로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폭소를 터트렸다.

그러나 부시맨의 독백이 단지 웃음거리리를 제공하기 위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부시맨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있을까.

「제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美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

먼 나라까지 갈 필요없이 우리는 이미 서구식 美의 기준을 받아들여 늘씬한 키, 가름한 얼굴, 쌍

**굳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창한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실타래처럼 얼키고 설키 많은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순진하게 생각해본다.**

꺼풀진 큰 눈, 오뚝한 코 등이 미인의 조건이 됐지만 北韓은 전통적인 美를 강조해 보름달처럼 둥그런 얼굴과 반달같은 눈, 도톰한 입술 등이 각광받고 있지않는가.

몇년전 흑인이 미스 유니버스가 됐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종차별의 극복이라느니 최초의 흑인 미스 유니버스가 해서 시끌벅적했지만 피부만 까맣다고 해서 흑인이자 따지고 보면 혼혈에 혼혈을 거듭해 파란눈 오뚝한 코 등 백인들이 생각하는 美의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또 한가지 이야기.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수염이 덩수룩하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왜 수염을 기르십니까」하고 물어보니 「저는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라 면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속에서 가끔가다 한번쯤은 뒤집어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봤다.

물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불신과 오해, 질서, 반목 등의 대부분은 바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易之思之」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보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일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데서, 아니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려하는데서 대립과 반목이 시작된다.

굳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창한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실타래처럼 얼키고 설키 많은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순진하게 생각해본다.

우리가 추앙해 마지않는 安重根 義士가 일본에서는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로 비취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가장 남 생각 안해주는 집단중 하나인 기자라는 신분을 갖고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오늘도 무심코 돌을 던진 적은 없었는가」고 반문해 본다. ◀